

위기를 기회로 바꾼 투수 윤중현, 선발 자리 잡는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투수 윤중현이 더 높은 곳을 올려본다.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은 '위기'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선발을 중심으로 마운드는 위기의 연속이다. 위기의 마운드에서 사이드암 윤중현이 기회를 잡았다.

광주일고와 성균관대를 거친 대졸 4년 차 윤중현은 8월 9일 두산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6월 13일 롯데전에서 프로 첫 선발 경기를 치른 그는 6월 24일에도 대체선발로 KT전을 소화했다. 그리고 9월에는 선발로 뛰고 있다. 지난 1일 두산전에서 4이닝을 소화했고, 3일 휴식 뒤 5일 한화전에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올랐다.

4차례 선발 포함 올 시즌 20경기에 나온 그는 3.31의 평균자책점으로 2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팀은 물론 윤중현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즌이다.

윤중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즌이다. 1군에서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가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윤중현은 퓨처스 선수단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시즌 구상은 없던 이름이었지만 3월 7일 윤중현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날 자체 연습경기에서 윤중현은 주전 선수로 구성된 화이트팀을 상대로 '깜짝 호투'를 하며 이름을 알렸다. 깊은 인상을 남긴 윤중현은 마운드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받았고, 1군에서 자리를 지키고

4차례 선발 시즌 20경기 등판

3.31 평균자책점·2홀드 기록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 생겨

KIA 승리에 기여 하고 싶어

있다.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간 그는 지금은 선발이 필을 하고 있다.

윤중현은 "군 복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올해 1군 못 올라가면 그만 둔다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무조건 5월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캠프를 치렀다"며 "캠프 연습경기가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였다. 제대 후 첫 실전이었다. 서재용 코치님이 '너라는 투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름을 알려야 된다'고 하셨다. 그날 갑자기 공이 좋아졌다(웃음). 첫 시합이라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힘도 생겼다. 그날이 중요했다"고 이야기했다.

제구에 자신 있는 윤중현이지만 초반에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그는 "야구 하면서 불넷은 잘 안 했다. 제구에 자신 있었는데 1군 와서 불넷을 많이 했다. 자책도 많이 했다. 안타 맞을까 봐 피하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불넷을 쳤다"며 "지금은 안타를 맞더라도 스트라이크를 던지지는 마음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땅볼도 나오고 불넷이 줄었다. 불넷이 주니까 결과도 확

실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발로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선발 시절의 기억도 살아났다.

윤중현은 "대학교 때 선발로 많은 이닝, 길게 던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 현실적으로 팀이 5이닝 이상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일단 3이닝이라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며 "한 바퀴 돌고 나면 확실히 타자들의 반응이 다르다. 같은 공을 던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순간에 집중력이 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칠테면 쳐보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발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언제든 불넷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욕심은 더 커진다.

윤중현은 "아마추어 때 선발로 나가고, 다음 날 다시 등판한 적도 있었다.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됐다. 그래도 선발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 5이닝 이상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제구는 자신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큰 걱정은 없다. 팀 승리에 역할을 하고 싶다. 긴급한 순간에는 포수도 가능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포수를 했다(웃음)"며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자신감도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해온 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도 있다. 많은 생각 안 하고 하던 대로 할 생각이다. 저는 게임은 안 하고 싶다. 내가 나갔을 때 초반에 무너져서 분위기가 떨어지는 경기를 만들지 않는다. 야구는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니까 야수들이 힘 빠지지 않게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윤중현

류현진, 수염 깎고 호투... 시즌 13승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첫 이닝에서 토론토의 류현진(34)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 팀의 8-0 승리를 이끌며 시즌 13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양키스전 6이닝 6K 무실점

부진 씻고 팀 8-0 승리 이끌어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8월의 부진을 깨끗하게 씻고 9월 첫 경기에서 호투하며 시즌 13승(8패)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7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8-0 승리를 이끌었다.

13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다승 단독 2위에 올랐다. 리그 다승 1위 게리 콜(14승·양키스)과는 단 1승 차이이다.

아울러 MLB 개인 한 시즌 최다승 기록에도 1승 차이로 다가섰다. 류현진은 2013·2014·2019년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각각 14승씩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8월 6경기에서 평균자책점 6.51을 기

록하며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

류현진은 심기일전한 듯 담수룩했던 수염을 깔끔하게 밀고 나왔다.

달라진 건 얼굴만이 아니었다. 평소 140km대 후반을 기록하던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93.9마일)를 찍었다.

주무기 체인지업과 컷패스트볼의 움직임도 좋았다. 힘과 제구력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류현진은 1회초 팀 동료 마커스 시미언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고, 2회까지 여섯 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잡았다.

1회 선두타자 D.J. 레메이휴를 3루 땅볼로 제압했고, 조이 켈로는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에런 저지에게는 이날 최고 구속인 151km 직구를 던져 유격수 땅볼로 잡았다.

류현진은 2회에도 장칼로 스탠튼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 산뜻하게 출발했다.

후속 타자 앤서니 리조에게 정타를 맞았는데, 우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호수비를 펼치며

아웃 카운트를 늘렸다. 이어 게리 산체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2회를 마쳤다.

3회엔 1사에서 브렛 가드너에게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히오 우르셀라와 레메이휴를 모두 유격수 땅볼로 정리했다.

류현진은 4회에도 삼진 2개와 내야 땅볼 1개로 깔끔하게 막았다.

5회엔 선두 타자 리조에게 9구 접전 끝에 좌전 안타를 내줬지만 산체스를 1루수 파울 플라이, 글레이브 토레스를 헛스윙 삼진, 가드너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6회에도 선두타자 우르셀라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후속 타자 레메이휴를 병살타로 잡은 뒤 켈로를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다.

한편 게레로 주니어는 데뷔 첫 40홈런을 기록했다. 게레로 주니어는 아버지인 게레로 시니어와 함께 역대 두 번째 부자(父子) 40홈런 진기록도 만들었다. 첫 번째 기록은 세실 필더-프린스 필더 부자가 세웠다. /연합뉴스

월드컵, 2년마다 개최하자? FIFA “검토”...UEFA “반대”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을 2년마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알짜감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데르 체페린 UEFA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프로축구클럽협회(ECA) 총회에서 연설하며 "2년마다 열린 월드컵의 권위는 약해지고 가치는 희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페린 회장은 또 "월드컵이라는 보석은 희귀성 때문에 가치를 유지해왔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FIFA가 지난 5월부터 남녀 월드컵을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월드컵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1942년과 1946년에 열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대회 이후 늘 4년의 주기를 지키며 개최돼왔다.

여자 월드컵도 1991년 1회 대회 이후 4년마다 열리고 있다.

FIFA는 이 틀을 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

드컵이 더 자주 열린다면 그만큼 팬들이 축구를 즐길 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축구를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축구협회가 FIFA에 월드컵을 2년 주기로 개최하자고 제안하자 FIFA는 축구 산업의 새 성장 동력을 찾는 부서인 글로벌축구개발팀에 검토를 맡겼다.

아르센 벵거 전 아스널 감독이 글로벌축구개발팀을 이끌고 있다.

벵거 전 감독은 "지금의 체제가 사라지고 월드컵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가 2년마다 열리는 것을 보고 싶다"며 부서의 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월드컵 격년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인다.

그는 최근 비디오로 공개한 연설에서 "국제 축구 일정에 대해 금기 없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 발로텔리·최호정 K리그2 28라운드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발로텔리와 최호정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원정에서 나란히 골을 기록한 발로텔리와 최호정이 K리그2 28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후반 18분 교체 투입된 발로텔리는 알렉스의 패스를 받아 위력적인 슈팅을 날리며 경기 흐름을 바꿨다. 전남은 분위기를 살려 2분 뒤 선제골을 만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박찬용의 헤더가 골대를 맞으면서 뒤로 흘렀고, 공을 잡은 최호정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랐다. 서울이랜드 시절인 2017년 9월 이후 4년 만에 기록된 최호정의 통산 9호골.

그리고 후반 30분에는 발로텔리가 김현욱의 패스를 받아 골망을 흔들면서 득점을 올렸다.

최호정과 발로텔리를 앞세워 득점에 성공한 전남은 경남의 공세를 잘 막으면서 2-0 승리를 거뒀



발로텔리

최호정

다. 6경기 만에 기록된 승리다.

한편 28라운드 MVP는 김천삼우 오현규에게 돌아갔다.

오현규는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며 팀의 3-1승리에 이바지했다. 이날 승리로 김천은 K리그2 선두자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